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남조, 고상진*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Nam-Jo Kim, SangJin Ko*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개인의 행복이 인생의 중요한 삶의 가치로 부상하면서,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비혼이나 만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을 조사하고, 결혼관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D시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분석에서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관은 자녀관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역할관은 결혼관, 자녀관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혼관에 미치는 요인은 성별(남성), 성역할관, 자녀관이었으며, 이 때 설명력은 51.9%였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 형성과 양성평등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사회적 문화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된 대학교육과 국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low birth rate in South Korea is a very serious problem. Recently, as personal happines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life value of life, unmarried people have developed a negative tendency toward marri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role and having children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marriage. The participants were 383 unmarried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live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Gender was a significant variable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Moreover,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ender role,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ving children. Attitude toward gender rol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having children.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attitude toward marriage showed that gender (male),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nd attitude toward having children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Moreover, this model explained 51.9% of variance in attitude toward marriage. Overall, it is necessary to change individual value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Keywords : Child, Gender Identity, Nursing, Marriage,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6년

*Corresponding Author : Sangjin Ko(Kyungpook National Univ.)

Tel: +82-53-420-4937 email: kosjin@knu.ac.kr

Received January 15, 2018

Accepted April 6, 2018

Revised (1st February 5, 2018, 2nd February 12, 2018, 3rd February 21,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1.17명으로 약 6% 감소하여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고, 출생아 수는 2011년 471,265명에서 2016년 406,243명으로 약 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1].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인구감소는 약 100년간 서서히 진행된 것에 비해 한국은 단기간동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인구 구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또한 유소년(0-1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6년 98.6명에서 2017년 104.8명으로 증가하여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 수를 넘어섰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생산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4].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비혼 인구와 결혼 연령의 증가를 들 수 있다[5].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1996년 434,000건, 2006년 330,000건, 2016년 281,0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평균 초혼 연령은 2012년 남성 32.1세, 여성 29.4세에서, 2016년 남성 32.8세, 여성 30.1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0세 이상의 산모가 분만한 신생아가 전체 출산율의 약 70%, 35세 이상 산모는 전체 산모의 약 19%로 조사되고 있다[1]. 초혼 연령의 증가로 인한 출산 나이의 상승은 여성의 임신 가능 기간을 단축시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다[6,7]. 특히 35세 이상의 산모는 중등도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어 임신부, 태아, 신생아의 건강,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체적 위험요소로 작용하므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6].

또 다른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와 이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 증가가 있다[5].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참여도가 증가하였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일들이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 남아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부담이 큰 경향이 있다[3,7]. 이 때문에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덩크족(Double Income No Kids, DINK)이 증가하고 있고, 자녀를 낳더라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7].

또한 여러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가치관이란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특징적인 신념을 의미하며, 가치관의 변화로 태

도와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고 태도와 행동의 변화로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다[7-9].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달 속에서 개인주의, 행복주의가 중요한 삶의 의미로 수용되면서 미혼 남녀의 결혼관은 부정적인 경향으로 변하여 비혼, 만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결혼은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 아닌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하였다[3,5]. 미혼남성과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고[7], 연령, 종교, 전공, 출생 순위, 경제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5, 10-12]. 그리고 결혼을 반드시 하겠다는 남성은 18.1%, 여성은 7.7%였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남성은 3.9%, 여성은 5.7%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결혼관 차이가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3,7]. 실제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3]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은 부부가 동등한 것에 비해,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우,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사회 경제활동의 지속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10,12] 혹은 가족 커뮤니케이션 유형[13], 출산의지, 가족응집성 등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14]들이 있어 결혼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 남성과 여성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태도를 가진다면 결혼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출산율이 기여할 것이다. 특히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간호학과 대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취득하는 경향이 있지만[14], 3교대 근무형태를 가진 간호사의 근무여건 상 자녀양육과 맞벌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결혼을 상승과 출산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간호대학생이 가지는 결혼관, 성역할관과 자녀관의 정도를 살펴보고,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관, 성역할관과 자녀관을 알아보고,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D 시에 소재한 Y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미혼 남녀 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40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연구 참여 거부와 중단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390부였으며, 이 중 누락된 내용이 있는 7부를 제외하고 총 383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결혼관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며 시대적,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적 관계가 결혼의 의미, 의식, 태도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실제 행동과 동일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15]. 본 연구에서는 Park [2]이 개발한 결혼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결혼의 필요성(2문항)과 결혼의 가치(7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동의 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결혼관이 긍정적일수록 결혼을 반드시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일수록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거나 늦게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3.2 성역할관

성역할관이란 각 성별의 특징을 나타내는 적절한 사회적 역할이나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며,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에 대한 적절한 태도, 행동, 가치를 학습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Park [2]이 개발한 성역할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녀평등주의(4문항), 성역할 고정관념(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동의 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평등주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2.3.3 자녀관

자녀관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만족감과 부담감에 대한 가치관이며, 만족감이 부담감보다 더 크면 원하는 자녀수가 증가하고, 부담감이 만족감보다 더 크면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원하는 자녀수가 감소한다[2]. 본 연구에서는 Park [2]이 개발한 자녀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녀의 필요성(1문항), 자녀의 가치(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동의 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4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치를 가짐을 의미한다. 자녀관이 긍정적일수록 자녀 출산의 동기로 작용하고, 부정적일수록 자녀 출산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은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

전체 연구 대상 383명 중 여학생이 324명(84.6%)으로 남학생 59명(15.4%)보다 많았으며 연령 범위는 21~24세가 228명(59.5%), 학년은 1학년이 113(29.5%)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 유무에서는 무교인 대상자가 250명(65.3%)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사는

대상자는 280명(73.1%), 출생 순위는 첫째가 181명(47.3%), 1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대상자가 22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236명(61.6%)이었다. 이전에 가족이나 결혼과 관련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75명

(71.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변수는 성별이었으며, 남학생의 결혼관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더 높았다($t=-4.49, p<.001$)(Table 1).

Table 1. Attitude toward marri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324(84.6)	2.30±0.45	-4.49	<.001
	Male	59(15.4)	2.59±0.47		
Age	≤20	80(20.9)	2.38±0.49	0.37	.690
	21~24	228(59.5)	2.33±0.44		
	≥25	75(19.6)	2.34±0.52		
Grade	Freshmen	113(29.5)	2.34±0.50	1.84	.140
	Sophomore	72(18.8)	2.24±0.48		
	Junior	99(25.8)	2.39±0.42		
	Senior	99(25.8)	2.39±0.44		
Religion	Yes	133(34.7)	2.31±0.56	-1.57	.119
	No	250(65.3)	2.46±0.05		
Living with parents	Yes	280(73.1)	2.36±0.46	0.75	.449
	No	103(26.9)	2.32±0.47		
Birth order	1st	181(47.3)	2.37±0.48	0.65	.525
	2nd	176(46.0)	2.32±0.46		
	≥3rd	26(6.8)	2.38±0.41		
Number of siblings	1	227(59.3)	2.37±0.48	0.64	.140
	2	94(24.5)	2.32±0.46		
	≥3	62(16.2)	2.38±0.40		
Family harmony	Yes	236(61.6)	2.34±0.45	-0.23	.819
	No	147(38.4)	2.35±0.49		
Taking a family or marriage class before	Yes	275(71.8)	2.36±0.47	0.61	.545
	No	108(20.1)	2.32±0.45		

3.2 대상자의 결혼관, 성역할관 및 자녀관이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결혼관 2.35±0.47 점, 성역할관 3.05±0.41 점, 자녀관 2.61±0.4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Attitude toward marriage, gender role, and having child of subjects (N=383)

Variables	Mean±SD	Min~Max
Attitude toward marriage	2.35±0.47	1.00~3.78
Attitude toward gender role	3.05±0.41	2.00~4.00
Attitude toward having child	2.61±0.42	1.18~3.73

3.3 대상자의 결혼관, 성역할관 및 자녀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관은 성역할관과 음의 상관관계($r=-.39,$

$p<.001$), 자녀관과는 양의 상관관계($r=.68, p<.001$)을 보였고, 성역할관과 자녀관은 음의 상관관계($r=-.30,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83)

Variables	Attitude toward gender role	Attitude toward having child
	r(p)	
Attitude toward marriage	-.39(<.001)	.68(<.001)
Attitude toward gender role		-.30(<.001)

3.4 대상자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성역할관, 자녀관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3단계 위

Table 4. Variable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N=383)

Variables	Attitude toward marriage								
	B	SE	β	t	p	R ²	Adj R ²	F	p
step 1	2.30	0.02		90.99	<.001	0.05	0.05	20.21	<.001
Gender (male)	0.29	0.06	2.22	4.49	<.001				
step 2	3.56	0.16		21.45	<.001	0.18	0.17	40.99	<.001
Gender (male)	0.18	0.06	0.15	3.04	.002				
Attitude toward gender role	-0.40	0.05	-0.36	-7.66	<.001				
step 3	1.12	0.19		5.79	<.001	0.52	0.52	138.60	<.001
Gender (male)	0.17	0.04	0.14	3.72	<.001				
Attitude toward gender role	-0.19	0.04	-0.17	-4.68	<.001				
Attitude toward having child	0.69	0.04	0.62	16.57	<.001				

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을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성역할관, 3단계에서 자녀관을 투입하여 성별, 성역할관과 자녀관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였다.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점검하였을 때, Durbin-Watson 값은 1.83으로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는 0.87~0.95으로 0.1 이하, 분산팽창지수는 1.05~1.15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남성)을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0.21, $p<.001$) 설명력은 4.8%였으며, 영향요인은 성별(남성)($\beta=2.224$, $p<.001$)이었다. 2단계에서 성역할관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0.99, $p<.001$) 설명력은 17.3%로, 1단계에 비해 12.5%증가 하였으며 영향요인은 성별(남성)($\beta=0.145$, $p=.002$), 성역할관($\beta=-0.365$, $p<.001$)이었다. 3단계에서 자녀관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38.60, $p<.001$), 설명력은 51.9%로 2단계에 비해 34.6% 증가하였으며 영향요인은 성별(남성)($\beta=0.135$, $p<.001$), 성역할관($\beta=-0.178$, $p<.001$), 자녀관($\beta=0.618$, $p<.001$)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의 정도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해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조사하여 저출산 대책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경향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결혼관 점수는 평균 2.35점으로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Park [2]의 2.48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10]의 2.63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Park [2]의 연구 대상은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구성 비율이 더 높고 본 연구대상자보다 연령대가 높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Kim과 Song [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Choi와 Lee [10]의 연구 결과보다 본 연구 대상자가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는 것은 대상자의 전공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는 모두 간호학 전공자로, 간호대학생이 다른 대학생보다 결혼관이 부정적인 이유는 전공의 특성 상 학생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의 결혼관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Kim과 Song [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여학생 결혼관 점수는 2.30점으로, Kim과 Song [12]의 연구에서의 여학생의 점수 2.50점보다 낮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Jo와 An [1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은 결혼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타적 결혼관이 높게 나타나 결혼을 필수적인 발달과업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은 전공 특성 상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14],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의식이 강한 편이다. 또한 많은 임상경험과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필요한 전문직의 특성 상, 결혼은

로 인해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관 점수는 3.06점으로 대학생의 2.92점[10], 2.83점[12]보다 높았고, 중학교 교사의 3.18점[2]보다 낮았다.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10]와 Kim과 Song [12]보다 점수가 높은 이유는 본 연구 대상에서 여학생비율이 84.6%로 두 연구 대상자에 비해 약 25% 많은 성비의 차이 때문이라 생각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해 구분한 오랜 사회적 규범인 성역할관이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기존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양성평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12,17]. 또한 본 연구 대상자 모두 간호학 전공자로, 간호학 전공자가 타 전공자보다 성역할관 점수가 높게 나타난 Kim과 Song [12]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Park [2]의 점수보다 성역할관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이 학생들에게 가족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가정, 도덕, 사회 과목 교사들이었으므로 수업하는 교과목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10]. 최근, 어려운 경제적 환경과 취업률 하락은 다시 전통적인 보수적 성역할관으로 변화시켜 안정적인 취업과 가정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5]. 그러나 전문직으로 취업이 용이한 편인 간호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 내 업무에 있어서도 평등한 부담을 원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자녀관 점수는 2.61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10]의 3.38점, Kim과 Song [12]의 2.84점, Na와 Kim [18]의 연구 3.57점보다 낮았다. 이 역시 본 연구 대상자가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고 간호학 전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 현대사회의 발전과 함께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개인적인 행복 추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은 여학생으로 하여금 자녀를 가지는 것이 본인의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게 한다[10,12].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19]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자녀 양육에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에는 남성의 2.6배, 주말에는 2.0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여대생으로 하여금 미래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끼게 하여 부정적인 자녀관을 갖도록 하였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식에 대한 조사[16]에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간호사의 3교대 근무와 같은 불규칙적인 근무 형태를 가지며,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과 임신이 상황에 따라 연기되기도 한다[20]. 이러한 근무형태는 기존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맞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만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병원시설은 많지 않다[16]. 이 때문에 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있어 타 직업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국가와 기업의 자녀출산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Jo와 An [16]의 연구를 볼 때, 병원 내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과 실효성 있는 국가적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관과 자녀관은 양의 상관관계, 결혼관과 성역할관은 음의 상관관계, 성역할관과 자녀관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2,10,12].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로부터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 대상자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자녀 출산이라는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10]. 반면,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결혼이나 자녀출산이 꼭 필요하다는 전통적인 가치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등한 성역할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과 자녀가 인생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21].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태도로 평등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는 부모세대의 여성 희생적인 결혼생활이 이를 보고 자란 대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결혼생활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관계의 중요성과 역할 분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적극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 성별, 성역할관, 자녀관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1.9%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 때 자녀관이 결혼관을 가장 강력한 설명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다고 볼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 때문이라 사료된다[22].

그러나 남성의 결혼관은 기혼자가 더 높은 반면, 여성은 기혼자가 더 낮게 나타났다[23]. 가족가치와 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내적갈등을 겪게 된다[24]. 따라서 결혼이 여성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25].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혼관과 자녀관, 특히 양성평등적인 결혼 생활이 형성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율 증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성역할관, 자녀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자녀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적 정책과 홍보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고 결혼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최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결혼관과 자녀관 점수가 타학문 전공 대상자보다 낮았고, 성역할관 점수는 더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서 오는 차이점인지 전공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점인지 확인하여 이들에게 알맞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D지역의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만을 조사한 연구이므로 해석에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반복적이고 더 많은 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opulation Trend Survey [Internet]. 2016,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vw_cd=&list_id=A2_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assessed Dec., 10, 2017)
- [2] Y. M. Park, "The family values of middle school teachers and the awareness about population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 1-84, 2010.
- [3] S. Y. Shon, E. J. Kim,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Hyonsang-gwa-Insik*, vol. 34, no. 4, pp. 169-200, 2010.
- [4] G. V. Jones,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3, no. 3, pp. 453-478, 2009.
DOI: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7.00180.x>
- [5] M. J. Chin, H. E. Chung,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3, no. 3, pp. 31-51, 2010.
- [6]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High-risk pregnancy classification [Internet]. 2010, Available From: http://ksog.org/bbs/skin/notice_popup/download.php?code=notice&number=5187(assessed Dec., 20, 2017)
- [7] S. S. Lee,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26, no. 2, pp. 95-140, 2006.
- [8] A. J. Cherlin,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6, no. 4, pp. 848-861, 2004.
DOI: <https://doi.org/10.1111/j.0022-2445.2004.00058.x>
- [9] Y. I. Kwon, D. W. Namkung, "Ecological examination of single men and women's future fertility behavior in relations with their family values, recognized fertility policies and perceived economic condi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8, no. 1, pp. 75-92, 2013.
- [10] H. K. Choi, S. H. Lee,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87-595,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87>
- [11] H. G. Kim, J. Y. Seo,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vol. 52, pp. 175-206, 2012.
- [12] M. Y. Kim, Y. S. Song,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03-311, 2012.
DOI: <http://doi.org/10.5977/jkasne.2012.18.2.303>
- [13] S. W. Ban, B. S. Chon, "The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on choices of marriage and spouse", *Speech & Communication*. vol. 16, pp. 244-269, 2011.
- [14] K. S. Kim, "A study on the views of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Journal of Wellness*. vol. 18, no. 2, pp. 217-225, 2017.
DOI: <https://doi.org/10.21097/ksw.2017.02.12.1.217>
- [15] S. H. Park,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and perceptions of marriage in university students-Based on university students in Gyeongsang-do reg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12, no. 1, pp. 207-232, 2016.
- [16] E. J. Jo, E. S. An, "Influence of awareness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on pre-parent's role of th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11, pp. 208-217,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11.208>

- [17] A. Thornton, L. Young-Demarco, "Four decades of trends in attitudes toward family issues in the United States : The 1960s through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vol. 63, no. 4, pp. 1009-1037, 2001.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1009.x>
- [18] Y. M. Na, M. K. Kim,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6, no. 2, pp. 215-234, 2012.
- [1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ternet]. 2016, Available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2/0200000000AKR20160222184300017.HTM> (assessed Jan., 30, 2018)
- [20] M. Jun, G. Shin, K. S. Choi, S. A. Lee, S. W. Hong, "The attitude toward marriage, pregnancy and abortion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312-320,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312>
- [21] G. Kaufman, "Gender role attitudes and college students' work and family expectations", *Gender Issues*. vol. 22, no. 2, pp. 58-71, 2005.
DOI: <https://doi.org/10.1007/s12147-005-0015-1>
- [22] K. S. Eun, Y. S. Lee, "Family valu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8, no. 1, pp. 107-132, 2005.
- [23] H. Y. Shin, E. R. Bang, "Investigation of women's & men's view on marriage and birth", *2007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vol. 1, pp. 494-495, 2007.
- [24] M. F. Nicole, "Gender Role Attitudes and the Labour-market Outcomes of Women across OEC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 21, no. 3, pp. 416-438, 2005.
DOI: <https://doi.org/10.1093/oxrep/gri024>
- [25] K. A. Ki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liberal arts at university to cultivate women leaders-Effect of operating multidisciplinary leadership curriculum regarding strengths of family life for family of orientation and views of marriage and children for family of procre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no. 4, pp. 69-105, 2014.

김 남 조(Nam-Jo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수료)

<관심분야>

간호과정, 간호연구

고 상 진(Sangjin Ko)

[정회원]



- 2014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관심분야>

기초간호과학, 신경생리학 간호